

# 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청산도 구들장논 기원 700년 전일 가능성 제기 민·관·연 협의로 관리 계획 수립·등재 준비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청산도 구들장논의 발원 시기에 대한 실증 자료(유적) 확보로 순항 중이다.

그동안 구들장논 조성 시기는 토양층의 퇴적 시기를 기준으로 최소한 약 380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연구를 통해 발견된 토기편의 연대 측정 결과 700년 전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고려 선종시기(1092) 최사경의 유배 기록과 백성 거주에 대한 기록인 태종실록(1409) 등 거주와 농경 시기를 사료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물증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민관연 협의를 통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잠정목록 등재 신청

청서 작성을 준비 중이며, 올해 12월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완도를 꿈꾸며 출발한 이 사업의 목표는 군 이미지 제고 및 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증가,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어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시켜 완도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다.”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2017년도에 완도군 전역에 대한 기초 학술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국제학술회의의 지문과 2019년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세계농업유산인 청산도, 여서도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의 전경이다.

일대의 구들장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자료 확보 및 등재 논리를 수립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인 청산도 구들장논은 2014년 4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경사가 심한 지형에 돌로 구들을 놓는 방식으로 석축을 쌓고 흙을 다져 만들었는데, 특히 위 논에서 아래 논으로 이어지는 지하 암거 구조를 통해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신안군서 국제보호종 흑두루미 관찰

### 복상 중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 이용

신안군은 국제적인 보호종인 흑두루미가 압해도 일대에서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흑두루미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순천만과 중국 양쯔강, 일본 규슈지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 목록에 취약종(Vulnerable)으로 분류된 국제 보호종으로 전 세계 개체군이 11,000개체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및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생존집단 대부분이 일본 이즈미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기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우리나라를 거쳐 이동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적은 수가 순천만 습지에서 월동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2,700여 개체가 찾는다.

일본이나 순천만에서 월동한 후 번식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무리로 판단되는 흑두루미 무리가 지난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2주 동안 100여 개체가 신안 압해도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압해도에서 관찰된 흑두루미 일부는 중간기착하여 논지에서 막이활동을 하고 갯벌에서 휴식(잠자리)을 취하는 등 번식지로 이동하는 흑두루미에게 중요한 서식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압해도는 흑두루미 이외에도 멸종위기Ⅰ급 황새, Ⅱ급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을 비롯하여 약 1만 개체의 도요·물떼새들이 번식과 월동을 위해 대규모로 찾아온다. 이처럼 압해도 갯벌은 종다양성이 높고 보전 가치와 생태계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정지역으로 다양한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한 신안 압해도 갯벌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지정·관리되어 이곳을 찾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써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정승호 기자

## 이상의 함평군수, 관사 폐지...‘29년만 군민 품으로’



함평군수 관사가 29년 만에 군민 품으로 돌아간다.

함평군은 지난 22일 이상의 군수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군수 관사 폐지를 이날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5월 한 달간 공모방식으로 군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6월 말까지 사용용도와 사용자(단체·조직)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취약계층 자생조직이나 지역민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게는 가급적 무상(공과금 별도)으로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함평군수 관사는 관선 단체장 재임 당시 정부에서 파견된 단체장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91년

건립됐다.

군청 옆 728㎡ 부지에 연면적 228㎡, 2층 규모로 지어졌다.

그동안 군수의 업무 연장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29년간 유지되어 왔지만, 일각에선 권위주의 논란과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고비용·저효율로 낙인찍힌 군수 관사는 관치시대의 유물로 현재 몇몇 지자체에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관사가 갖는 상징성과 예산 등을 고려해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선에서 군민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목포시,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목포시가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승객 급감으로 인해 수입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까지 신청 접수 결과 지급 대상자는 개인택시 924명, 법인택시 650명 등 1,574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 강진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강진군은 강진읍 동성리와 춘천리, 군동면 덕천리 및 도암면 함촌리 일원 4개 지구에 대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촉량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 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 사업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영암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나서



영암군은 코로나 19와 식중독 발생 우려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 6개

항목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초과해야만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지정된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군청 위생팀에 신청 하면 위생팀에서 신청 업소를 방문해 위생 수준을 사전 진단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해 보완 사항 등 무상으로 컨설팅해 주고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증, 표지판, 2년간 출입·검사면제, 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된다. 현재 총 15개 업소가 등급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서치 아웃
2관	데드풀, 주디, 라라랜드
3관	더 터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서치 아웃
4관	1917
5관	1917, 다크 워터스
6관	로건, 비밀정보원, 신과 나
7관	인비저블맨
8관	라라랜드, 생일
9관	라라랜드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LOTTE CINEMA 광주(백화점)

4관	오픈 더 도어
5관	원데이, 라라랜드, n번째 이별중
6관	라라랜드, 1917, 서치 아웃

문의전화 1544-88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8(대인동, 롯데백화점 9층)